

제2장 대천(大川)1-5동

- 목충면(木忠面) : 옛 보령현 남쪽에 있던 면. 현재의 주교면 신대리, 대천동, 죽정동 지역이다.
- 우라면(于羅面) : 옛 보령현 남쪽에 있던 면. 현재의 대천 3-5동 지역이다.

1. 대천(大川) 1동

대천동의 구시지역과 동부지역, 죽정동을 관할한다. 구시가 옛 한내장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대천 시가지의 기원지역이라는 뜻으로 원동(元洞)이라고 하였다가 1999년 7월 20일 대천시 지역의 행정동 명칭을 대천1-5동으로 통일하면서 대천 1동이 되었다.

1) 대천동(大川洞)

본래 보령군 목충면(睦忠面) 지역으로 한내(하천 이름) 주변에 있는 마을이라 한내라고 부르고 대천(大川)이라고 표기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갈두리(葛頭里), 신평리(新坪里), 쌍암리(雙岩里), 관촌을 병합하여 대천리라 하였고, 이 이름을 따서 대천면·대천읍·대천시가 되었다. 1986년 대천시 승격 때 동쪽 일부는 원동(1동)에 편입되고, 서쪽 일부는 대관동(2동)에 편입되었다.

- 골캐논 : 새터와 대천초등학교 사이의 좁은 곳에 있던 논이다. 홍수 때는 먼저 침수되어 새터 마을이 섬처럼 되었다. 현재는 대부분 거주지가 되고 약간의 밭이 있다.
- 공판재 : 윗갈머리에서 죽정동 지장골로 넘어가는 고개로 꼭대기에는 성황당이 있다. 과거 나무꾼들이 공놀이하던 곳이다.
- 구시 : 1960년대 대천동 안에 있던 행정동의 한 이름이다.

- 구장터(舊市) : 과거에 대천시장이 있던 곳이다. 이곳은 한내 돌다리를 통하여 대천천 남쪽에서 사람이 모이고, 쇯개를 통하여 섬 지역에서 해산물과 사람이 모여 큰 시장이 형성되었었다.

그러나 일제시대 철도가 시장의 한가운데로 지나가 쇯퇴하게 되었고, 대신 신시(新市=새장터)가 개발되었다. 과거 나무장터와 구시 사이에 있던 하천인 보통(洑通)을 경계로 서남쪽을 구시라 한다. 2007년 말 철도가 이설되어 신시 지역과 소통이 편리하게 되었다.

- 대승사 : 일제시대 신사(神社) 자리에 세운 절로 정해년(1947) 2월 9일 젊은 승려 이종천이 세웠다고 한다.
- 대천간사지 : 대천간척지를 말한다. 보령지역에서는 바다를 막아 농경지화한 곳을 보통 '간사지'라고 부른다. 간척지(干潟地)의 석(潟)자를 사(寫)로 잘못 읽었기 때문이다.
- 보통 : 현 대천목욕탕 뒤쪽에 있던 보(洑)를 부르는 이름이다. 구장터 쪽으로 물을 대기 위하여 보를 막았는데 수위를 높여 물을 대는 역할과 해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대천천의 마지막에 있던 보이다. 보가 시내에 인접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나와 빨래도 하였으며, 수심이 깊어 어린이들이 빠져 죽기도 하였다. 1970년대 초 매립되었고 이 보에서 구시 쪽으로 나가던 수로는 현재 하수도 역할을 한다.
- 봉산(鳳山) : 대천초등학교 뒤쪽의 봉황산 줄기를 부르는 이름. 대천초등학교를 옛날에 봉산국민학교라고 불렀다.
- 봉황산(鳳凰山) : 대천 시가지 북쪽의 산이다. 죽정동의 노인들이 부엉산으로 부르는 것으로 보아 원래 부엉산(부영산)으로 부르던 것이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봉황산(鳳凰山)으로 변한 것으로 생각된다.
- 산제당 : 수청구지에 있는 산제당을 말하는데 근처의 지명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정월 열나흘 밤에 산신제를 지낸다.
- 삼형제 바위 : 송어둠병 안에 있던 바위로 간조 때 물 밖으로 나왔다.
- 상갈리(上葛里) : 윗갈머리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장터(新市) : 구장터의 상대 지명이다. 대천천 서쪽의 대천 시가지를 말한다.
- 새터 : 대천초등학교 앞 지역으로 과거 대천천이 범람하여 형성된 섬과 같은 곳인데 동대동의 나무장터와 유사한 지형이다.
- 쇯개 : 대천천의 하구(河口)에 해당하는 곳으로 과거에는 대천시장으로 통하는 관문이었다. 장날이면 섬에서 장배가 들어와 해산물을 공급하고 생활필수품을

가져갔으며, 일제시대에는 정기 연락선인 한천丸, 大川丸이 군산-인천으로 통하여 현미를 반출해 가고 생활필수품인 광목, 설탕, 시멘트, 양젓물, 성냥 등을 들여왔다. 사리 때는 셋개에 배를 대었으나 조금 때는 홍어뿌리에 대었다. 옛 문헌과 지도에는 해소포(蟹所浦)로 표기되어 있다. 옛날 쇠(金)를 반출하였기 때문에 셋개로 불리고 金浦로 표기했다고도 한다. 현재는 포구로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하고 구시와 이어져 주거지로서의 기능만 한다.

- 수명통 : 원간사지의 수명으로 6·25사변 때 인민군들이 사람을 죽여서 버리기도 했던 곳이라고 한다.
- 수청구지 : 대천여중 동쪽에 내민 산줄기이다. 대천동 주민들이 매년 1월 14일에 산제를 지내는 산제당이 있다.
- 숭어둡병 : 대천천과 궁촌천이 만나는 지점이다. 물이 서너 길 되게 깊었고 숭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물이 깊어 빠져 죽는 사람이 많았다. 물이 빠지면 바위 3개가 나왔는데 3형제 바위라고 하였다.
- 신보(新湫) : 대천동 옛 대천목욕탕 뒤에 있던 보. 구시 간척지에 물을 댐.
- 신사당 : 일제시대 신사(神社)가 있던 곳으로 현 대승사 자리이다. 일제시대부터 불리오던 타성으로 신사당이라고 부른다.
- 신시(新市) : 새장터의 한자 표기. 1960년대 초 대천리 안에 있던 행정리의 한 이름.
- 신평(新坪) : 1960년대 초 대천리를 4개의 행정리로 구분하면서 생긴 이름으로 새터와 윗갈머리를 합하여 신평이라 하였다.
- 신평보(新坪湫) : 대천동 현 대천초등학교 앞쪽에 있던 보. <1911, 朝鮮地誌資料>
- 쌍수문보(雙水門湫) : 보령소방서 아래쪽에 있던 보. <1911, 朝鮮地誌資料>
- 원간사지 : 대천역에서 셋개에 이르는 간척지로 일제시대 이전에 인력으로 간척한 곳이다. 아랫갈머리에 살던 한산 이 씨가 막았다는 전설이 있다. 간척지 밖에 새로운 간척지가 만들어져 옛 제방에는 가옥이 들어서 있다.
- 원뚝 : 원간사지 둑으로 하부폭 10m, 상부폭 1m, 높이 5m 정도이며 밖에는 석축을 하였다.
- 윗갈머리 : 갈머리 중 대천여중 동쪽지역.
- 충혼각 : 대승사 앞에 있던 6.25 전몰군경의 사당이다. 앞에는 충혼탑이 세워져 있었는데 2008년 현충일을 기하여 궁촌동에 탑을 세우고 없었다.
- 한내들 : 갈머리 밑에 있는 신시지역의 논이다. 현재는 모두 시가지가 되었다.
- 해평(蟹坪, 계들) : 대천동 구시 지역 들. <1911, 朝鮮地誌資料>

- 홍어뿌리 : 아랫갈머리에서 대천간척지로 들어오는 길과 간척지 제방이 만나는 곳의 갯고랑을 말한다.



대천농협 창고(1994)



현충일 행사(2007)



셋개(1996)



대천철교(2007)

2) 죽정동(竹亭洞)

본래 보령군 목충면(睦忠面)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회두리(回頭里), 독정리(篤亭里), 중보리(中洑里), 죽동(竹洞), 지장동(地藏洞)을 병합하여 죽동(竹洞)과 독정(篤亭)의 이름을 따서 죽정리라 하여 대천면(읍,시)에 편입됨. 1986년 시 승격과 함께 죽정동으로 부르게 되었다.

- 가는골 : 대락굴의 동북쪽 골짜기. 골짜기가 좁아서 부르는 이름이라고 한다.
- 가장골 : 대락굴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 고장(高場) : 높은마당의 한자식 표기이다. 1960년대 죽정동 3구 중의 하나.
- 광명坪(光明坪) : 죽정동 대락굴 앞 들. '광명들' <1911, 朝鮮地誌資料>
- 팽명들 : 지장골 앞 들
- 국수쟁이 : 독쟁이 북쪽에 있는 산. 청라면과의 경계임.
- 기계보 : 보령소방서 앞에 있던 보. 과거에도 보가 있었는데 근래 원동기로 물을

끌어 올려 기계보라 부른다.

- 꽃다굴 : 아산병원이 있는 곳.
- 높은마당 : 대락굴과 대천천 사이에 있는 마을. 대천-청양간 국도가 통과하고 있으며 원래 대천천이 범람하면서 생긴 자연제방으로 주변보다 높아 수해의 염려가 적기 때문에 일찍부터 가옥이 들어섰다. 주변보다 높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 대락굴 : 바락굴과 가장굴 사이의 골짜기이다. 위뚱에는 조대비가 살았다는 전설이 있는 전통 상류가옥이 있었으나 2009년에 헐렸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곳에 인조의 계비인 조대비의 혈족들이 거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1915년에 측도한 1:50000 지형도에 의하면 이곳에 대천면사무소가 표기되어 있다. 명천동에서 이전한 대천고등학교가 들어서 있다.
- 독쟁이 : 죽정동 동쪽마을이다. 천휴당 이몽규의 신도비가 있다.
- 독정(篤亭) : 독쟁이의 한자식 표기. 1960년대 죽정리 3구 중 하나.
- 뚝안 : 새뚝의 안쪽에 있는 논.
- 마녀들 : 바락굴 앞에 있는 들.
- 목장제당(木場堤塘) : 동대동 나무장터 제방. <1911, 朝鮮地誌資料>
- 바락굴 : 지장굴과 대락굴 사이의 골짜기. 대천고등학교가 들어서 있다.
- 방소나무 : 중보 마을에 있던 커다란 소나무. 단오날 그네를 매고, 정월 보름날 동제를 지냈다고 한다.
- 방아다리 : 대락굴 입구 현 죽동교 바로 위쪽을 말한다. 이곳에 물레방앗간이 있었다.
- 방앗논 : 현 대천체육관 앞에 있던 논
- 벌터 : 높은마당 남쪽의 작은 마을.
- 보두평(保頭坪, 보두막들) : 동대동, 현 성모병원 뒤쪽 들. <1911, 朝鮮地誌資料>
- 산제당 : 지장굴과 가장굴 사이의 언덕에 있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신수(神樹)인 정자나무 밑에서 제를 지냈는데 별도의 건물은 없었고 제를 지낼 때마다 임시로 초가집을 지었다고 한다. 정월 초이튿날에 지냈으나 1964년경부터 제를 지내지 않는다.
- 상아보(湘河淤) : 독쟁이와 중보 사이에 있던 보. 죽정동 다락굴 앞들에 물을 대었음. <1911, 朝鮮地誌資料>
- 새논들 : 중보와 높은마당 사이의 들, 주변보다 약간 높은 자연제방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비교적 늦게 개간 된 듯하다. 상아보에서 물을 대었다.
- 새뚝 : 대락굴에서 내려오는 하천. 하천바닥이 높아진 이른바 천정천으로 남서쪽으로 휘어져 있다.

58 • 대천동

- 서낭당이 : 지장골 입구에 있던 성황당. 우림주택 담장 옆에 있었으나 없어짐.
- 세목골 : 대락골의 북쪽 가운데 골짜기. 올라가면 세 길이 만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소삼 : 높은마당 북쪽의 작은 마을. 옛날에 가옥 3채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하고, 작은 냇가 3개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 신보(新湫) : 죽정동 현 청천교 아래 50여 m 지점에 있던 보. 화산동에 용수를 공급 하였음. <1911, 朝鮮地誌資料>
- 신보(新湫) : 청천저수지 수몰지역의 옛 다리(청천교) 밑에 있던 보. 증보들과 새논 들에 물을 댐. <1911, 朝鮮地誌資料>
- 쌍너덜 : 대락골의 서북쪽 골짜기. 두 줄로 둘러덜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
- 아래뜸 : 대락골의 남쪽.
- 안골 : 독쟁이의 계곡 안쪽.
- 안산 : 독쟁이 서남쪽에 있는 산.
- 오동골 : 독쟁이 큰고랑과 참나무골 사이의 계곡.
- 오리보 : 독쟁이 앞에 있던 보.
- 용못 : 과거 지장골로 통하던 길의 입구에 있던 웅덩이. 용이 올라갔다는 전설이 있다. 지금은 모두 메워졌다. 과거 대천천이 이곳으로 흘렀음을 말해준다.
- 원산상보(圓山上湫, 두리퇴상보) : 동대동 두리미 마을 윗보 <1911, 朝鮮地誌資料>
- 원산하보(圓山下湫, 두리퇴하보) : 두리미 마을 아래보 <1911, 朝鮮地誌資料>
- 위뜸 : 대락골의 북쪽.
- 자갈뒗동산 : 바라골과 대락골 아래뜸 사이에 있는 조그만 산.
- 자라바위 : 오리보 안에 있던 바위로 자라가 새카맣게 앉아 있었다고 함.
- 제삿갈 : 높은마당과 대천천 사이의 논. 제사담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보임.
- 죽동(竹洞) : 1960년대 죽정 3구(죽동 고장 독정)의 하나.
- 죽동보(竹洞湫) : 소삼보? <1911, 朝鮮地誌資料>
- 증보 : 36호 국도와 신산방향 도로가 갈라지는 곳에 있는 마을.
- 지장골 : 죽정동의 서쪽 골짜기 마을. 근래에 유성·한전·현대·대우·성지아파트·부경아파트 등이 들어서 거주 인구가 많다. 성지아파트 뒤에는 옛 토성이 있다.
- 참나무골 : 독쟁이 북쪽에 있는 계곡.
- 참나무숫쟁이 : 높은마당 동쪽 지역을 말하는데 참나무가 많았었다고 한다.
- 천다랭이 : 지장골 한전아파트 자리에 있던 논. 논이 작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철뚝 : 지장굴 앞 팽명들에 있는 높은 언덕으로 집이 2가구 있었으나 현재는 없다. 논을 개간하면서 자갈을 쌓아 놓은 곳으로 보인다.
- 칠성제당 : 대락골 마을에서 칠성제를 지내던 곳으로 세목골 밑에 있었음.
- 큰고랑 : 독쟁이의 서남쪽 계곡. 안에 절터가 있다.
- 태성메산 : 지장굴과 바락굴 사이에 있는 봉황산 자락인데 토성이 있다. 이곳에서 장수가 동대동의 동메산(토성이 있음)과 싸울 때, 산의 일부를 잘라 오다가 떨어뜨려 높은마당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토성이 있는 곳의 해발고도는 77.3 m이다.
- 풍암보(楓岩洑) : 청천저수지 수몰지의 장산리 쪽에 있던 보. 죽정동 독쟁이에 물을 대었음.
- 호랭이 턱거리 : 중보의 북쪽 산 끝.



옛 회머리 가옥터(1992)



지장굴 전경(2008)

2. 대천(大川) 2동

대천동의 서쪽 지역이다. 신시 시가지와 여러 아파트를 포함하기 때문에 인구의 거주가 많다. 대관동으로 불리다가 1999년 7월 20일 대천 2동으로 변경되었다.

- 대천면(大川面, 邑, 市) : 본래 보령군의 지역으로서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목충면(睦忠面)의 회두(回頭), 독정(篤亭), 중보(中洑), 죽동(竹洞), 지장(地藏), 갈두(葛頭), 신평(新坪), 대천(大川), 쌍암(雙岩), 관촌(冠村), 목장(木場) 11개 동리와 우라면(于羅面)의 고잠(高岑), 군입(軍入), 흑포(黑浦), 신대(新垔), 사동(寺洞), 금암(金庵), 요동(蓼洞), 대동(大洞), 남곡(藍谷), 탑동(塔洞), 외송(外松), 내송(內松), 장항(獐項), 궁촌(宮村), 흥동(興洞), 어전(於田), 명암(鳴岩), 송정(松亭), 이천(伊川), 평신(平新), 시랑(侍郞), 동대(東垔), 동산(東山), 괴동(槐洞), 소정(邵亭), 대곡(大谷), 화현(花峴) 27개 동리와 남포군 북내면(北內面)의 후동(後洞)을 병합하여 대천(大川)의 이름을

따라 大川面이라 하고, 신흥(新黑), 요암(蓼庵), 남곡(藍谷), 내항(內項), 궁촌(宮村), 명천(鳴川), 동대(東岱), 화산(花山), 죽정(竹亭), 대천(大川)의 10개 리로 개편 관할하다가 1962년 11월 21일 법령 제 1177호에 의하여 읍으로 승격되었다.

그후 1986년 1월 1일 법률 제 3798호(시 설치 및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시로 승격되어 10개의 법정동과 6개의 행정동(元,大冠,大新,興德,王臺,玄浦)을 관할하게 되었다가 1995년 1월 1일자로 보령군과 통합되어 보령시에 속하게 되었다. 그후 왕대동이 신흥동에 합쳐지고, 대천1-5동으로 불리게 되었다.

- 갈머리 : 봉황산의 남쪽 산기슭 마을. 대천여중을 경계로 동쪽을 윗갈머리 서쪽을 아랫갈머리라고 한다.
- 개빨모퉀이 : 대천동의 가장 서쪽으로 서해바다와 만나는 곳이다. 주민들은 대부분 간척지 농사를 짓기 위하여 이주해 온 사람들이다. 이곳에서는 해방 직후까지 소금을 구웠다.
- 관촌(冠村) : 1960년대 대천면 대천리의 신평, 신시, 구시, 관촌 4구 중 1구.
- 관촌(冠村, 아랫갈머리) : 대천동 ‘아랫갈머리’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군두리재 : 소미에서 주교면 신대리로 통하는 대천동과 주교면의 경계에 해당하는 낮은 고개.
- 대관동(大冠洞) : 과거 대천시 6개 행정동 중의 하나이다. 현재 대천 2동이다.
- 대천동(大川洞) : 본래 보령군 목충면(睦忠面)의 지역으로서 한내(大川)가에 있었으므로 한내 또는 대천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갈두리(葛頭里), 신평리(新坪里), 쌍암리(雙岩里), 관촌을 병합하여 대천리라 하고 이 이름을 따서 대천면·읍·시가 되었다. 1986년 대천시 승격 때 대천동의 인구가 많아 일부는 원동(1동)으로, 일부는 대관동(2동)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 독자굴 : 현 서오아파트 뒤편이다. 옛날 독을 굽던 가마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뒷산 : 소미와 개빨모퉀이 사이에 있는 산.
- 봉제산 : 봉황산을 부르는 다른 이름.
- 부엉재산 : 독자굴 주민들이 봉황산을 부르는 이름. 봉황산이 과거에는 부엉산으로 불렸는데 봉황산(鳳凰山)으로 표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소미 : 대천동의 서쪽에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양지편, 응달, 독자굴로 나뉜다. 보령 지방에서 만입지를 부르는 이름인 ‘소래’와 관련된 이름으로 보인다.
- 소호평(蘇湖坪, 소미들) : 대천동 소미 마을 들. <1911, 朝鮮地誌資料>

- 솔봉재 : 옛 농지개량조합 앞이다. 주변보다 약간 높았고 소나무가 많이 있어 그네를 매고 놀기도 했다고 한다.
- 쌍바위(雙岩) : 현 대천여중 자리이다. 큰 바위가 두 개 있어 쌍바위라 불렸다. 하나는 운동장과 현 외곽도로 사이에 있었고, 하나는 앞 건물의 동쪽 부분에 있었는데, 대천여중 건설로 교문 안쪽 정원에 모두 옮겨 놓았다. 고인돌로 추정된다.
- 쌍암리(雙岩里) : 대천동 대천여중 부근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아래갈머리 : 대천여중 뒷산에서 소미에 이르는 지역이다. 관촌(冠村)이라고도 불린다. 이산해의 손자 과암공(果菴公)의 묘가 있고, 묘소 밑에 12대 370여 년간을 살며 9대 진사를 지냈다는 진사택(進士宅)이라고 불리는 古宅이 있었다. 풍수설에서 말하는 이곳의 형상은 갈마음수형(渴馬飲水形)이라고 한다. 또 봉황산 연봉이 12봉인데 이것은 용의 꿈틀거림이요, 이곳 아랫갈머리는 용의 머리에 해당한다고도 한다.
 옛날 이토정 선생이 이곳에 철마(鐵馬, 기차)가 달릴 터이니 철마가 나타나거든 후손 들은 이곳을 떠나라고 했다는 전설이 있다. 소설가 이문구 선생의 고향이기도 하다.
- 양지편 : 소미의 서쪽지역. 양지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옥가티 : 대천여중 뒤 계곡.
- 우묵골 : 옛 대명중학교 옆 골짜기. 후생주택이 들어서 있다.
- 웅달 : 소미의 동쪽지역으로 북서향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지장모탱이 : 아랫갈머리에서 소미로 이어지는 모퉁이. 이 곳에는 과거에 큰 성황당이 있어 소미와 갈머리 사람들이 서낭제를 지내곤 하였다. 돌무덤 규모는 2평 정도였고 신수(神樹)로는 작은 소나무가 서 있었다.
- 할미바위 : 갯빨모탱이 앞에 있는, 간척사업 이전에는 갯벌에 돌출해 있던 바위 너덜이다. 대천 방조제 준공 기념비가 서있었다. 옛날 갱구할머니가 주교면 용머리에 서 왕대산으로 왕래할 때 이 바위에서 쉬어갔다는 전설이 있다.



아랫갈머리(1992)



할미바위 방조제준공비(1992)

- 함경도 다리 : 옛 대천역 북쪽 망대 근처에 있던 돌다리이다. 양쪽에 돌을 놓고 납작한 돌을 걸쳐 놓았는데 길이가 5자, 폭이 4자쯤 되었다고 한다.
- 후생주택 : 옛 대명중학교 옆 우묵골에 있는 주택으로 1970년대 초 국민주택사업으로 건설되었다. 주택건설 이전에는 논이었다.

3. 대천(大川) 3동

1986년 1월 1일 대천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생긴 행정동이다. 법정동인 화산동과 동대동을 합하여 대천에서 새롭게 발전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대신동이라고 하였다. 1995년 시로 통합한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다가 대천이라는 지명을 살리기 위해 1999년 7월 20일 대천 3동으로 바꾸었다.

1) 동대동(東岱洞)

본래 보령군 우라면(于羅面) 지역으로서 한내(大川) 동쪽이 되므로 동대(東岱)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평신리(平薪里), 시랑동(侍郎洞)과 목충면(睦忠面)의 목장리(木場里)를 병합하여 동대리로 대천면에 편입되었다.

- 가로배미 : 오랏 마을 앞 구레답에 있던 논 이름.
- 가막재 : 절편에서 시랑굴로 넘어가는 낮은 고개. 이곳에서 까마귀가 울면 근동에서 초상이 난다고 한다.
- 가재넷갈 : 작은 오랏 아래에 있는 냇물. 동대주공 북쪽에서 흘러오는 냇물이다.
- 개장굴 : 한내여중에서 절편 방앗간 쪽으로 내려오는 개울과 주변 마을. 위개장굴 아래개장굴로 나뉜다.
- 검바위 : 두러미에 있는 고인돌로 두개가 나란히 있다. 범바위라고도 한다.
- 공동묘지 : 송말림과 동박굴 사이에 있다. 일제시대에 설치된 공동묘지이다.
- 관모배미 : 오랏 앞 구레답에 있던 논 이름.
- 구레답 : 오랏 앞 들. 물이 나오는 논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기우제터 : 한내여중 동쪽의 산 끝.
- 깃대배미 : 오랏 앞 구레답에 있던 논 이름.
- 나무장터 : 대천천 안에 있던 섬으로, 섬의 동쪽에 있던 하천을 파서 서쪽을 메웠기

때문에 시가지와 연결되었다. 과거 이곳에 땀나무를 파는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나무장이 섰던 자리는 우리은행 자리이다.

- 너분내 : 평설과 명암의 경계가 되는 하천.
- 당나부랭이 : 시렁굴에서 한내여중 앞 청지관 쪽으로 넘어오는 길.
- 대동(大東) : 동대동의 4구 중 1구.
- 데부뚝 : 가재 냇갈의 둑. 홍수 때 자주 터져서 주변 논에 많은 피해를 주었다.
- 돈바탕 : 한내여중 동쪽 산 중턱. 옛날 성주산에서 나무를 해 오다가 쉬면서 돈치기를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동막골 : 원평 저수지 위 계곡.
- 동메산 : 동대동의 가장 북쪽에 있는 둥그런 산. 토성이 있으며, 안터에서 내려오던 산줄기가 구슬처럼 뭉쳐 끊겨 구슬봉이라고도 한다.
- 동산(東山) : 동메산의 한자식 표현.
- 두리미 : 동메산 밑 마을.
- 두발가지등생이 : 옛 광불사 동쪽 성주산 꼭대기로 두 군데로 갈라지는 길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 망암 : 옛 광불사 동쪽 성주산 꼭대기에 있는 바위.
- 목장(木場) : 나무장터의 한자 표기. 1960년대 동대동의 4구 중 1구.
- 번덕지 : 오랏 위뜸의 현 동대감리교회 자리. 이곳에는 큰 묘지가 있었는데 동네 어린이들의 놀이터였다. 추석 때 이곳에 씨름장이 섰는데, 물아래(시내)와 물위(오랏)로 나누어 싸웠다고 한다.
- 병목안 : 성주산 서쪽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가 병목처럼 좁아 붙여진 이름이다.
- 부뚜막 : 성모병원 뒤쪽의 들. 대천농업고등학교 실습답이었다.
- 사당골 : 한내여중 남쪽 골짜기.
- 사태백이 : 진등산의 남쪽. 1950~1960년대 나무가 없던 시절 사태가 나서 붉게 노출된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오리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였다.
- 서낭댕이(옛 대천고 옆) : 옛 대천고등학교 북쪽 담장 옆에 있었다. 서낭에 팽나무가 서 있었고, 대천에서 가장 큰 성황당으로 정월 초순의 밤에는 촛불을 많이 쬐어 꽃밭 같았다고 한다. 서낭 뒤에 상여집이 있었다.
- 서낭댕이(명암입구) : 오랏에서 명암으로 올라가는 길가에 있다. 신수는 팽나무이다.
- 서낭댕이 : 질편 새마을 회관 앞에 있었다. 지금도 신수인 참나무가 남아 있는데 참나무의 밑 둘레는 242cm에 이른다.

이 참나무는 옛날 양씨 할아버지가 심었는데 후손이 없어 이 참나무에도 상수리가 열리지 않는다는 전설이 있다. 현재도 상수리가 잘 열리지 않는다.

- 성업사보 : 옛 철교 위 현재의 보(洑) 자리에 있던 보. 일제시대 내항동 간척지를 성업사에서 만들고 이곳에 보를 막아 물을 대었다. 보 입구에 궁촌과 내항동에 물대는 규약이 적힌 비가 부러진 채로 넘어져 있다가 해안도로 공사 때 어딘가로 실려가 매립되었다.
- 성주산(聖住山) : 화산동, 동대동, 명천동 동쪽에 있는 높은 산줄기를 통칭하여 부르는 이름. 옛날에는 송암산(崇巖山)이라고 불렀는데 통일신라 시대 무염국사가 성주사를 크게 일으킨 뒤로 성주산으로 불렸다. 성주산은 모두 중생대 퇴적층으로 되어 있어 무연탄, 청석(벼룻돌), 오석 등의 산출이 많다.
- 성황당점(城隍堂店, 성황당이주막) : 동대동 평설 서낭당이주막 <1911, 朝鮮地誌資料>
- 세집매 : 신설동 위쪽으로 대천 3동 사무소가 있는 곳. 집이 3채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속벌 : 시령굴 북쪽에 있는 들.
- 송말림 : 사태백이 옆에 있는 산으로 송씨네가 관리하는 산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쇠바탕 : 옛 광불사와 병목안고랑 사이. 설바탕에서 변한 이름이라고 한다.
- 쇠부리터 : 한내여중 동쪽 산 밑을 부르는 이름. 한국 선사문화연구소 손보기 박사가 답사한 바 조선시대의 도요지로 판명되었다.
- 숲구터 : 옛 광불사 동쪽으로 옛날 숲가마가 있던 곳이다.
- 설바탕 : 세집매의 별칭. 옛날 성주에서 나무를 해 올 때 쉬었던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시령굴 : 질편 동쪽에 있는 마을. 양 씨, 박 씨, 조 씨가 많이 거주한다.
- 시영박골 : 독막골 남쪽 골짜기로 시영이 많아서 붙인 이름이라고 하며 옛날 호랑이가 많아서 무서웠던 곳이라고 한다.
- 신설동 : 대천천의 동쪽 마을. 새로 생긴 동네라 해서 붙인 이름이다. 나무장터와 대천시가지 사이의 대천천을 매립하면서 하천부지에 살던 사람들을 이주시켜 많은 집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지대가 낮아 1979년 홍수에 큰 피해가 나기도 하였다.
- 아래뜸 : 큰 오랏의 서쪽.
- 엉더지기 : 두러미 밑에 있던 보.
- 영미굴 : 원평 저수지 밑의 들. 가뭄이 들어도 이곳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시령굴의 밥그릇이라고 했다고 한다.

- 오랏 : 동대동 남서쪽에 있는 큰 마을. 옛날 보령현의 우라면(于羅面)도 이곳의 지명을 딴 것으로 보인다. 청천 저수지가 생기기 전에는 정자나무 위쪽은 모두 밭이었고 아래쪽은 모두 논이었다. 마을 정자나무에는 옛날부터 제를 지냈는데 동대지구 구획정리 사업으로 말라 죽었다.
- 오랏말림 : 한내여중 동쪽 산으로 오랏 사람이 관리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오소리골 등생이 : 사당골 남쪽 명천동과의 경계.
- 원평(元坪) : 1960년대 동대동 네 구(元坪 · 平薪 · 大東 · 木場) 가운데 한 구. 두리미, 시령굴, 질편을 포함하는 지명이다. 원래 동대리 1번지가 이곳이라 해서 元자를 넣고 평평하고 질편을 의미하는 뜻에서 坪자를 넣었다고 한다.
- 윗가막재 : 평설에서 시령굴로 넘어가는 고개.
- 위뜸 : 큰 오랏의 동쪽.
- 작은 오랏 : 오랏의 남쪽.
- 잣들 : 신설동과 질편 사이에 있는 들.
- 진등산 : 화산동과의 경계가 되는 산.
- 질편 : 신설동과 시령굴 사이에 있는 마을. 땅이 질고 평평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비가 오면 질지만 가뭄 때면 척박한 땅이었다.
- 큰오랏 : 오랏의 북쪽
- 평설 : 오랏 동쪽 마을. 많은 가옥이 밀집해 있고 땅이 평평하다. 옛날에는 솔밭이 아주 넓었다고 한다.
- 평신(坪薪) : 평설의 한자 표기. 1960년대 동대리의 행정구 중 하나.
- 평화촌 : 대천천 매립지에 있었던 저소득층의 주거지역. 신설동으로 이주하였다.



오랏정자나무(1992)



동대지구 구획정리사업(1993)

- 한내12간 돌다리 : 대천 철교위 약 50m 상류에 있던 옛 다리로 이 다리를 통하여 남포현과 보령현이 이어졌다.

수청거리의 어떤 과부가 놓았다는 전설이 있고, 그 과부한테 제사지낸다고 풍물을 치고 놀기도 하였다.

2) 화산동(花山洞)

본래 보령군 목충면(睦忠面)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동산리(東山里), 괴동(槐洞), 소정리(邵亭里), 대곡리(大谷里), 화현리(花峴里)를 병합하여 화현(花峴)과 동산(東山)의 이름을 따서 화산리라 하여 대천면에 편입시켰다. 1986년 대천시 승격과 함께 화산동으로 부른다.

- 가남굴 : 고리굴 위쪽 골짜기.
- 가막재 : 청천교에서 한내여중으로 통하는 산업도로가 지나는 고개. 옛날에 이곳의 흙으로 그릇을 구웠다고 한다. 가막재 남쪽에는 많은 고분이 있다.
- 가시논 : 가장골 앞 점들에 있는 논. 전설에 의하면 동학군이 관군에 쫓겨 모심는 사람 속으로 숨어 들었는데 다리에 감은 감발(천으로 종아리를 감는 것) 때문에 들켰으나 눈에 가시가 많아 감발을 했다고 둘러대면서 관군을 눈에 넘어뜨려 밟아 죽였다고 한다. 그래서 가시논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 가장골 : 재가티 남쪽 골짜기.
- 감나무골 : 무더미에서 안산쪽으로 있는 골짜기. 옛날에 감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 검바위 : 가남굴 위에 있는 바위로 의병이 모의하던 곳이라고 한다.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고 해서 금바위 또는 검바위로 불렸다고 한다.
- 고리굴 : 오얏굴과 소쟁이 사이에 있는 마을. 옛날부터 정자나무에 고목제(古木祭)를 지냈다고 한다. 제일은 정월 보름이며 모든 집에서 건립을 해서 지낸다. 과거에는 동네에서 제관을 뽑았으나 지금은 동장이나 문화원장이 제관을 맡는다.
- 국구개 : 화산동과 청라면의 경계이다. 국도 36호가 지난다. 고개 동쪽 마을을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다. 한양조씨의 집성촌이며 한양 조 씨의 선조가 심었다는 소나무가 있다. 마을에 발굴된 고인돌이 있다.
- 귀선동 : 소쟁이골 끝, 뒷골 위쪽의 골짜기. 날이 꺾으려면 귀신이 지결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금구데기 : 국구개 마을 뒤쪽에 있는 일제시대에 금을 캐던 구덩이.
- 금구데기 : 소대박골 위에 있는 일제시대 금을 캐던 구덩이.
- 달랑고개 : 안터에서 청라면 향천리로 넘어가는 고개.

- 달봉재 : 솟대봉과 소두산 사이로 난 고개. 소의 멍에 뒤에 있는 좀 높은 곳을 달봉이라 하는데 소두산을 소의 형국으로 볼 때 달봉에 해당되어 달봉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 당산 : 큰 골 북쪽에 있는 산. 해발 68.0m.
- 독저굴 : 안터 입구 동쪽의 골짜기. 옛날에는 집이 몇 채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는 형국의 명당이 있는데 수리(매) 때문에 발복이 안 된다는 전설이 있다.
- 동구재 : 고리굴에서 뒷굴을 거쳐 큰골로 넘어가는 고개.
- 동산리(東山里, 외야골) : 오얏골 <1911, 朝鮮地誌資料>
- 두꺼비바위 : 안터 입구에 있는 두꺼비처럼 생긴 바위.
- 두밤논 : 안터 앞 들에 있는 논.
- 뒤골 : 고리굴 뒤, 소쟁이 위쪽의 골짜기.
- 똥그란산 : 고리굴 입구의 산. 모양이 동그랗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고리굴을 보호하는 산이라고 한다.
- 말미산 : 굴고개 서쪽에 있는 산. 끝이 아름다워 말미산으로 불린다고 한다.
- 무더미 : 큰골 앞 들
- 미럭미 : 국구개 마을에서 안터로 들어가는 길가에 있는 조그만 산.
- 배바위 : 국구개 서쪽, 산 중턱에 배처럼 생긴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배바위라고 하며, 그 밑 마을도 배바위라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 이곳까지 물이 들어와 이 바위에 배를 매어 놓았다고 한다.
- 범바위 : 달랑고개 남쪽 산허리에 있는 바위. 정확하게는 청라면에 속해 있다. 편마암으로 된 큰 바위이며 밑에는 큰 구멍이 있어 호랑이가 살았다고 한다. 동쪽으로 튀어있어 달맞이 하기에 알맞은 바위로 안골 사람들이 자주 올라와서 놀던 바위이다. 이 바위 위쪽의 높은 봉우리에서 안터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 부뚜막 : 청룡재가 있는 언덕의 끝.
- 사포보(沙浦洑, 살포정이보) : 살푸쟁이 보 <1911, 朝鮮地誌資料>
- 사포평(沙浦坪, 살포정이들) : 살푸쟁이 마을 앞 들 <1911, 朝鮮地誌資料>
- 산소고랑 : 국구개 마을 위쪽에 있는 계곡. 한양 조 씨 선조들의 묘가 있어 그렇게 부른다고 한다.
- 산수골 : 화현(花峴, 굴고개)에서 대천천 쪽으로 나있는 골짜기. 산수동이라고도 한다. 산에서 물이 나와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나 청라 의평리에 집성촌을 이루는 전주 이씨의 입향조인 李夢說의 묘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인 것으로 보인다.

- 산제당 : 오얏골의 산제당이다. 큰앵골의 성주산 기슭에 있다. 돌담으로 지어져 있으며 주변은 수백 년 된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다. 제일 큰 소나무 밑에 제단이 있고 이곳에서 제를 지낸다. 물은 바로 옆 골짜기에 샘을 만들어 이용한다.
- 살구나무골 : 오얏골 동쪽 골짜기. 지금도 살구나무가 있다.
- 살푸쟁이 : 가막재 서쪽 대천천 동쪽에 있는 마을. 옛날 이곳에 큰 이무기가 살았는데, 이곳을 지나던 대사(大師)가 농부의 살포(농기구 이름)를 빌려서 잡았다고 하여 살푸쟁이로 불린다고 한다.
- 서낭당이 : 고리굴 입구 산 밑에 있었으나 현재는 자취도 없다.
- 서낭당이 : 점촌과 국구개 사이의 고개에 있다. 과거에는 동대동 쪽에서 청라 쪽으로 통하는 큰 길로 통행인이 많았다. 신수는 참나무로 현재도 남아 있으며 약간의 들무더기가 남아 있다. 화산동에서는 가장 컸던 서낭이다.
- 소대박굴 : 안터 동쪽 계곡. 옛날 새끼 딸린 소가 있었는데 호랑이가 새끼를 물으려고 하자 어미소가 뒷다리 사이에 새끼를 넣고 싸워 호랑이를 물리쳤다는 전설이 있다.
- 소두산(蘇頭山) : 화산동 뒤 성주산 줄기의 한 봉우리. 해발 355m. 소머리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소두산 너머 청라면 향천리에는 구수굴이라는 지명이 있고 산의 서쪽에는 소마당굴이라는 지명이 있어 소두산이 소와 관련되어 붙여진 지명이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 소마당굴 : 큰골 뒤 소두산 밑의 골짜기이다.
- 소쟁이 : 고리굴 입구와 청룡재 사이의 마을.
- 소정리(邵亭里) : 소쟁이 <1911, 朝鮮地誌資料>
- 소정리(邵亭里) : 소쟁이의 한자 표기.
- 소죽은논 : 점들에 있는 논으로, 소가 논을 갈다가 죽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소태논 : 안터 앞 들에 있는 논.
- 솟재봉 : 큰골 동쪽, 성주산이 화산동 쪽으로 돌출한 봉우리이다. 높이 211.1m
- 수리재 : 증골에서 청라면 향천리로 넘어가는 고개. 높이 77.2m
- 아보(鵝狀, 오리보) : 굴고개 북쪽에 있던 보. 현 청천저수지 제방 아래.
<1911, 朝鮮地誌資料>
- 안산 : 큰골 남쪽의 산. 높이 88.4m
- 안터 : 국구개와 큰골 사이의 마을. 한양조씨 집성촌이며 진사 조일원(趙一元)선생이 살던 곳이다.

- 앞산 : 점촌의 서쪽 배바위 앞쪽에 있는 산이다.
- 앞산골 : 재가티 북쪽 골짜기이다.
- 양지것 : 오얏골 아래 지역을 말한다.
- 오얏골 : 화산동의 남쪽에 있는 마을. 옛날 기와를 많이 구워서 와야골(瓦野골)이라고 부르던 것이 변하여 오얏골이라 부른다는 전설이 있다. 이 마을에는 지금도 정월 초이튿에 산제를 지낸다.
- 옷샘 : 안터 들 가운데 있던 샘. 옷 올린 사람이 이 물로 씻으면 낫는다는 전설이 있다.
- 왜솔밭 : 큰골 앞에 있는 솔밭. 리키다 소나무로 되어 있어 왜솔밭으로 부른다.
- 작은뚝배미 : 국구개의 논이름으로 작은 뚝배미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장어배미 : 미럭미 앞에 있는 논. 장어처럼 기다랗다고 해서 붙인 이름.
- 재가티 : 앞산과 서낭당이 사이에 있는 고개.
- 절사래 : 고리굴 앞 버스정류장 앞에 있는 논. 과거 절 소유의 땅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절터 : 절터굴에 있는 옛 절터로 아직도 절의 석축이 남아 있다.
- 절터굴 : 고리굴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절이 있었다.
- 점굴(店村) : 국구개 남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에 옹기그릇을 굽던 점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 점들 : 점굴 앞 들.
- 점행길 : 두리미에서 점에 이르는 길. 옛날에는 큰 길이었음.
- 증굴 : 안터 입구에서 동북쪽으로 난 골짜기.
- 진등산 : 화산동과 동대동의 경계가 되는 산으로 산등성이가 길어서 그렇게 붙였다고 한다.
- 질마배미 : 안터 앞 들에 있는 논.
- 쪽다리 : 안터 입구에서 증굴로 통하는 곳에 있던 다리. 현재는 지명이 됨.
- 청룡 : 큰골과 소쟁이 사이에 있는 당산 밑 언덕. 큰골에서 보았을 때 좌청룡(左靑龍)에 해당되는 지형이므로 청룡이라 부른다.
- 청룡앞들 : 청룡 앞에 있는 들.
- 청룡재 : 소쟁이에서 큰골로 가는 고개.
- 큰고랑 : 안터 북쪽 골짜기.
- 큰골 : 안터와 소쟁이 사이에 있는, 화산동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예부터 집이 많아서 큰골이라고 불렀다.

70 • 대천동

- 큰뚝병배미 : 국구개의 논이름으로 큰 뚝병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큰앵골 : 오얏골 남동쪽 골짜기로 산제당이 있다.
- 탐골앞 : 고리굴 서낭당이 앞에 있는 논으로, 절터굴에 절이 있을 때 탐이 이 근처에 있었다고 전한다.
- 피난터 : 가남굴 꼭대기이다. 동학군이 낮에는 이곳에서, 밤에는 마을 정자나무 밑에서 모여 서로 의론하고 연락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 함박골 : 소쟁이 밭. 우묵해서 그렇게 부른다고 한다.
- 화현(花峴) : 국구개의 한자식 표현. 1960년대 화산동을 花峴과 花山으로 나눌 때 부르던 이름이기도 하다.



굴고개 한양조씨 재실(1992)



굴고개 샘(1992)

4. 대천(大川) 4동

보령시의 5개 동 중 하나이다. 1986년 대천시 승격과 더불어 명천동과 궁촌동을 합하여 흥덕굴의 이름을 따 흥덕동이라고 하였다. 1995년 시군 통합 이후에도 관할구역은 같다. 대천의 지명을 살리기 위해 1999년 7월 20일 대천 4동으로 바꾸었다.

1) 궁촌동(宮村洞)

본래 보령군 우라면(于羅面)의 지역으로서 궁들(궁들) 가운데 이룩된 마을이므로 궁마을 또는 궁말, 궁촌(宮村)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흥동(興洞) 일부를 병합하여 궁촌리라 해서 대천면에 속하였다.

1986년 대천시 승격과 함께 궁촌동이 되었다. 과거 대천시 지역에서 가장 좁은 면적을 가진 동이다. 북쪽 경계는 대천천이며 동쪽 경계는 옛 수청삼거리로 통하는 도로이다. 따라서 옛 철도 서쪽으로 궁촌동과 이어지는 취락 중에도 일부는 명천동에 속한다.

- 궁리(宮里) : 궁말의 한자 표기.
- 궁말 : 궁촌의 원 이름. 옛날 궁(宮)의 땅이라 해서 궁말이라고 했다는 전설도 있고, 아주 가난하게 살았다고 해서 궁말이라고 했다는 전설도 있다. 여지도서에는 궁리(宮里)로 표기되어 있다.
- 대곶평(大串坪, 디고지들) : 대곶지들. 버스터미널 있는 곳. <1911, 朝鮮地誌資料>
- 대곶지들 : 궁말과 대천천 사이의 들.
- 대리밑들 : 상보 근처의 들. 다리 밑에 있는 들이라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 동산 : SK뷰 아파트 앞에 있는 동그란 산. 산의 서쪽은 궁촌동에 속하고 동쪽은 명천동에 속한다. 2008년 충혼탑이 건설되었다.
- 마려들 : 궁촌내와 내항동 사이에 있는 들. 궁촌동에 속한 들이다.
- 상보 : 남포면과의 접경에 있는 보.
- 아래뜸 : 궁말의 서쪽으로 예부터 가옥이 밀집되어 있어 궁말의 중심이다. 마을에서 위하던 팽나무가 아직도 남아있다. 둘레가 약 2m이며 주민들은 이 나무를 자르면 불길하다고 믿는다.
- 앞넷갈 : 궁말 남쪽에 있는 하천.
- 연애보 : 궁말 남쪽에 있는 보.
- 원안보 : 궁말 냉동공장 남쪽에 있는 보.
- 위뜸 : 궁말의 동쪽으로 이 곳은 원래 논이 대부분이었다. 두 아름이나 되는 팽나무가 신수(神樹)로 위해졌고, 옆에는 대동샘이 있었다. 팽나무 주변에 돌무더기는 없었고 나무에 형겁이나 새끼줄을 매달고 떡을 해 놓았었다. 이 팽나무는 30여 년 전 불에 타 없어졌다.
- 종평(宗坪, 마루들) : 궁촌동 아래뜸 남쪽의 들 <1911, 朝鮮地誌資料>



옛 도로의 확장



옛 철길(2007)

2) 명천동(鳴川洞)

본래 보령군 우라면(于羅面)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어전리(於田里), 명암리(鳴岩里), 송정리(松亭里), 이천리(伊川里), 흥동(興洞) 일부를 병합하여 명암(鳴岩)과 이천(伊川)의 이름을 따서 명천리라 하여 대천면에 편입됨. 1986년 대천시 승격과 함께 명천동으로 부르게 되었다.

- 개침벌 : 송정 저수지 동북쪽에 있는 평지.
- 곱돌백이 : 양수장 뒤 느랏과 송쟁이 사이에 있는 낮은 언덕으로 곱돌(활석)이 산출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 깨차밭골 : 송정 저수지 밑 골짜기.
- 꼬치말림 : 오막당 남쪽 언덕.
- 꾸지밭 : 명암 서남쪽에 있는 밭으로 꾸지뽕나무가 많아서 붙인 이름.
- 너분내 : 동대동과 명천동의 경계를 이루는 내.
- 너분내골 : 너분내가 흘러오는 골짜기.
- 느랏 : 흥덕굴 동쪽에 있는 마을. 이천에서 옛 종축장 가운데를 통하여 큰 길이 나 있었다. 1930년대에는 5가구 정도가 거주하였는데 수리 시설이 좋아진 후 인구가 급증하였다.
- 느리재골 : 송정 저수지 위쪽의 성주산 계곡.
- 당마루들 : 느랏 북쪽에 있는 들.
- 당산 : 명암 저수지와 송정 저수지 사이에 있는 산. 해발 86.9m.
- 당산벌 : 꾸지밭 남쪽에 있는 들.
- 돌새논 : 이천(伊川) 방앗간 앞의 논.
- 두마디골 : 명암 저수지 동북쪽 골짜기. 이곳에 있는 논이 두 마지기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광산 개발로 물이 나지 않아 폐답되었다.
- 뒷동산 : 명암 동쪽 명암과 산업도로 사이에 있는 산이다.
- 뒷산모퉁이 : 뒷산의 서북쪽 모퉁이.
- 뒷산 : 송정 저수지 남쪽에 있는 산으로 송쟁이 뒤에 있어서 붙인 이름이다.
- 등잔거리 : 옛 옥마역 위의 산줄기.
- 등타락골 : 송정저수지 동남쪽 계곡.
- 망치(望峙,바라기지) : 바래기재. <1911, 朝鮮地誌資料>
- 맷독거리 : 21호 국도 주변으로 남포면과의 경계에 위치한다. 옛날 연자방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성주사에서 바래기재를 넘어 이곳에 와서 방아를 찧어 갔다는 전설이 있다.

- 명암(鳴岩) : 평설 남쪽에 있는 마을. 옛날부터 가옥이 상당히 밀집된 큰 동네이다. 1960년대 명천 다섯 구(鳴岩·松亭·伊川·興谷·水清洞) 가운데 한 구이다.
- 명천폭포 : 솜방골 위에 있는 폭포로 과거에는 수량이 풍부하여 절경을 이루었으나 광산 개발로 지표수가 고갈되어 비가 많이 와야 폭포를 이룬다. 겨울에는 아름다운 빙폭을 이룬다.
- 밤나무골 : 성주암이 있는 성주산 골짜기. 작은골의 남쪽이다.
- 백마골 : 뒷동산 동남쪽 골짜기.
- 버드나무집 : 으름내 삼거리 아래쪽의 집. 집 밑에 4아름 정도의 큰 버드나무가 있었다. 버드나무에 마을 사람이 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 벗구논 : 청룡굴 밑에 있는 논이다. 수렁이 깊어서 벗고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병목안 : 옥마저수지 안쪽을 말한다. 옥마저수지 제방자리가 좁아 병목에 해당되고 안쪽의 넓은 지역을 병목안이라고 한다.
- 산적골 : 뒷동산 북동쪽 산업도로가 지나가는 골짜기로 예부터 돼지가 쫓 먹이는 형국이라는 설이 있다.
- 새암구비 : 성주터널이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큰 소나무가 있었고 그 밑에 샘이 있었는데 나무꾼들이 쉬어 가던 곳이었다.
- 서낭댕이 : 느랏에서 이천으로 넘어가는 길의 느랏 쪽 중턱에 있었다. 작은 나무가 신목으로 서 있었으며 돌무더기가 쌓여 있어 돌을 3개 던지고 침을 3번 뱉고 지나가곤 하였다.
- 성주샘 : 맷독거리 동북쪽에 있는 샘. 맷독거리 사람들이 모두 이 물을 이용하였다. 물맛이 아주 좋았다고 한다.
- 송쟁이 : 옛 종축장 북쪽 옥마역 서쪽에 있는 마을로 과거에는 가옥이 많지 않았으나 (1930년대 6집 정도), 광산 아파트가 들어서 큰 마을이 되었고 보령시청이 근처에 들어서 발전이 기대되는 곳이다.
- 송정(松亭) : 송쟁이의 한자식 표현이며 1960년대 명천 5구 중 1구이다.
- 수청동(水淸洞) : 수청거리의 한자식 표기이며 1960년대 명천 5구 중 1구이다.
- 수청거리 : 옛 대천고등학교와 동대교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옛 한내 돌다리로 통하던 길과 동대동으로 통하던 길이 만나던 삼거리가 있는데 이곳을 수청 삼거리라

하였고, 그 근처 동네를 수청거리라고 한다. 수청삼거리를 중심으로 명천동, 동대동, 궁촌동으로 구분하였다. 새로운 도로의 개통으로 21호 국도에서 해수욕장 도로가 갈라지는 곳을 수청삼거리라고도 부르며 이 도로변에 가옥이 밀집되었다. 이 밀집된 마을을 모두 수청거리라고 부른다.

- 수벌 : 해너물들과 청룡굴 사이의 들.
- 숲방골 : 명천폭포 밑 골짜기.
- 신경대 : 오막당 동남쪽 골짜기.
- 쪽벌: 깨차밭골 밑에 있는 들. 물이 귀해서 농사짓기 어려웠다고 한다.
- 양지뜸 : 으름내의 북쪽 마을.
- 어전(於田) : 느랏의 한자식 표현.
- 어전리(於田里, 르랏) : 명천동 ‘느랏’ <1911, 朝鮮地誌資料>
- 오막당 : 보령시청 부지에서 성주터널 쪽으로 가는 길가에 있는 작은 마을. 옥마산이 보이는 오목한 곳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오소리골 : 산적골 위에 있는 작은 바래기재 밑에 있는 골짜기. 오소리가 많아서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 옥마산(玉馬山) : TV 중계소가 있는 봉우리를 말한다. 옥마봉이라고도 한다. 명천동, 남포면, 성주면의 경계를 이룬다. 해발 600.8m이며 꼭대기에 삼각점이 있다.
- 으름내산제당 : 대영사 바로 뒤에는 으름내와 맷독거리 마을에서 위하던 산제당이 있었다. 단칸 기와 지붕으로 되어 있었고 삼면의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약 200년 전에 세웠다고 한다. 제는 정월 초사흘에 걸립(乞粒)을 해서 날을 잡아 지냈다. 산제당 앞에 절이 생기고 난 후 산제를 지내지 않았으며 산제당도 무너져 없어졌다.
- 으름내삼거리 : 으름내 마을 안에 있는 삼거리.
- 으름내 : 맷독거리 동쪽 마을을 통칭하여 으름내라고 부른다. 남포와의 경계 하천인 으름내를 따서 부른 이름으로 보인다.
- 음지뜸 : 으름내의 남쪽 마을로서 남포와의 경계이다.
- 이명동들 : 한내초등학교 동쪽의 들로 청라 저수지를 만들기 이전에는 물이 귀하여 농사짓기가 무척 힘들었던 곳이다. 현재 명천 주공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 이천(伊川) : 으름내의 한자식 표이다. 으름내를 伊乙音川으로 표기하다가 伊川으로 표기한 것을 보인다. 1960년대 명천 5구 중 1구이다.
- 작은 송쟁이 : 송쟁이의 남쪽지역.
- 작은골 : 참새골 남쪽의 성주산 골짜기.

- 작은바래기고랑 : 작은 바래기재 남쪽에 있는 계곡.
- 작은바래기재 : 성주터널 북쪽에 있던 고개로 성주로 나무하러 다닐 때 넘던 고개이다.
- 저들레 : 청룡굴과 으름내 사이의 언덕. 으름내 쪽으로 2곳의 성황당이 있었다.
- 진등 : 보령시청 서쪽, 대천중축장 자리이다. 등처럼 높고 길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옛날에는 소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중축장이 들어선 후 초지를 조성하였다.
- 참새밭 : 느리재골 남쪽의 성주산 계곡.
- 청룡굴 : 옥마 저수지 밑 골짜기 논. 물이 풍부해서 구름만 끼어도 물이 남는다는 들이다.
- 큰바래기재 : 성주터널 위에 있던 고개. 대천에서 성주로 넘어다니던 고개로 나무꾼이 많이 다녔다.
- 큰송쟁이 : 송쟁이의 북쪽지역.
- 턱굴 : 느랏과 송쟁이 사이의 골짜기.
- 한정평(寒井坪, 혼우물들): 보령시청 남쪽의 해너물들 <1911, 朝鮮地誌資料>
- 해너물들 : 맷독거리와 중축장 사이에 있는 들.
- 흙덕굴 : 대영사가 있는 골짜기. 이곳에는 산제당이 있었다. 비가 오면 골짜기로 물이 하얗게 내려와 멀리서 보면 흰 말과 같아 백말이라고도 불렀다.
- 흥곡(興谷) : 1960년대 명천동 4구 중 1구로 흥덕굴의 한자식 표현이다.
- 흥덕굴 : 한내초등학교 남쪽 국도변에 위치한 마을. 1930년대에는 7가구 정도가 있었으나 수리 시설이 좋아진 후 인구가 급증하였다고 한다.



명천폭포(1992)



보령시청 낙성식(1994)

- 흥덕동(興德洞) : 보령시의 6개 동 중 하나이다. 1986년 대천시 승격과 더불어 명천동과 궁촌동을 합하여 흥덕굴의 이름을 따 흥덕동이라고 하였다. 1995년 시군 통합 이후에도 관할구역은 같다.
- 흥동(興洞) : 흥덕굴 <1911, 朝鮮地誌資料>

5. 대천(大川) 5동

- 왕대동 : 과거 대천시 관할 6개 동 중 서부 지역에 있던 동이다. 중앙에 있는 왕대산의 이름을 따 왕대동이라 하였다. 법정동인 남곡동, 내항동, 요암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였으나 1998년 10월 28일 현포동으로 통합되었다.
- 현포동(玄浦洞) : 1986년 1월 1일 대천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생긴 행정동이다. 법정동인 신희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여 대천해수욕장의 옛 이름인 현포를 따서 현포동이라고 하였다. 1998년 10월 28일 현포동과 통합되었고, 1999년 7월 20일 대천 5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 남곡동(藍谷洞)

본래 보령군 우라면(于羅面)의 지역으로서 죽실, 쪽실 또는 남곡(藍谷)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탑동(塔洞)과 대동(大洞), 요동(蓼洞), 외송리(外松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남곡리라 해서 대천면에 편입되었다. 1986년 시 승격과 함께 남곡동이라 부른다.

- 가래울 : 진등 남쪽의 골짜기.
- 가수명 : 들물 때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든 수문이다. 들물 때 닫히고 썰물 때 열리게 만들었다. 과거에 수명제도 지냈다고 한다.
- 가진개 : 개장벌 앞.
- 가픈말 : 새말과 개장벌 사이의 마을.
- 가픈말재 : 가픈말에서 새말로 넘어가는 고개.
- 갈산동(葛山洞) : 칩살피의 한자식 표기.
- 감자굴 : 사굴 동쪽의 골짜기. 바다 쪽으로 열려있다.
- 강대고랑 : 안양굴 서쪽의 골짜기.
- 개장벌 : 번던과 가픈말 사이의 언덕.
- 갱말 : 장벌의 북쪽에 있는 마을. 냇가에 있어 갱말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제주 고씨의 효자문이 있다.
- 고래등 : 통소굴 서쪽에 있는 언덕.
- 구석지 : 양지뜸 북쪽의 계곡.
- 구천피 : 황굴 북쪽의 산봉우리. 주유소 뒤쪽의 봉우리이다. 묘가 9천 장 있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꼬부랑소나무 : 성황당에 있던 신목.
- 나분배 : 안죽실 동쪽에 돌출한 산줄기.
- 남곡포(藍谷浦,독실포) : 남곡동 죽실 포구 <1911, 朝鮮地誌資料>
- 남동(藍東) : 1960년대 남곡동 3구(塔東, 藍西, 藍東) 중의 1구. 황굴 지역.
- 남서(藍西) : 1960년대 남곡동 3구(塔東, 藍西, 藍東) 중의 1구. 죽실 지역.
- 넓적바위 : 나분배 동쪽 계곡에 있는 넓적한 바위.
- 당고개 : 탑골에서 당집 있는 곳으로 넘어가는 고개.
- 당산: 탑골 뒷산.
- 대동(大洞) : 일제 시대까지 부르던 이름으로 황굴을 지칭한다.
- 대실재 : 남곡동 황굴에서 남포면 제석리 대실로 넘어가는 고개.
- 동퇴산 : 황굴 앞 들 가운데 있는 조그만 산.
- 동구재 : 안죽실 뒷산. 요암동과의 경계.
- 매나뚝 : 심방굴에서 새뚝으로 이어지는 뚝.
- 밤적굴 : 남곡동 서남쪽 끝에 있는 바다 쪽으로 열린 골짜기.
- 방굴 : 해망산 북쪽에 있는 마을. 일본인이 금광을 하였고, 장벌너머에서 금방아를 쥘어 금을 선광하였다. 근래까지 선광하던 시멘트 통이 있었다.
- 방굴들 : 방굴 앞 들.
- 방죽거리 : 탑골 앞 다리 있는 곳. 도로 안쪽에 방죽이 있었다고 한다.
- 방죽논 : 방죽거리 남쪽의 논. 약 1m 두께의 토탄이 매장되어 있다.
- 뱀새배미 : 안양굴 앞의 논 이름.
- 버금지굴 : 구천피 서쪽 골짜기로 해수욕장 도로의 서쪽.
- 버들굴 : 구천피 남쪽 골짜기.
- 번던 : 번던골 왼쪽에 있는 마을로 과거에는 남서에 속했는데 요즘은 탑동에 속한다. 평지에 입지한 마을에 붙는 이름이다.
- 북당굴 : 방굴의 남서쪽 골짜기.
- 사굴 : 감자굴과 밤적굴 사이에 바다 쪽으로 열린 골짜기.
- 새구녕쪽뿌리 : 방굴 서쪽에 돌출한 산줄기.
- 새논 : 갯말 북쪽(바다쪽)에 있는 논.
- 새뚝 : 남곡동의 중앙을 흐르던 하천으로 바다가 주변보다 높은 천정천이었다. 모래 뚝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경지정리로 없어졌다.

- 새말 :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뜻으로 가쁜말과 장생이벌 사이에 있다.
- 새태말 : 칩살피와 안양골 사이의 마을.
- 샘배미 : 갯말 북쪽(바다쪽)에 있는 논.
- 서낭댕이 : 장벌 서남쪽 해망산에서 내려오는 쪽뿌리의 끝에 있었다. 신목으로 소나무가 있고 돌무더기는 파도에 휩쓸려 없어졌다. 방굴 사람들까지 와서 서낭제를 지냈으나 해안도로 공사 후 없어졌다.
- 서낭댕이 : 꼬부랑소나무가 있는 곳이다. 현재는 돌무덤은 없어지고 신목인 소나무만 남아있다.
- 세집매 : 탑골과 번던골 사이의 마을.
- 소도둑고랑 : 방굴 서쪽에 있는 바다 쪽으로 열린 골짜기. 인적이 드물어 붙여진 이름이다.
- 소리개재 : 남곡동 황굴에서 내향동 안뜸으로 넘어가는 고개.
- 소반챙이 : 통소골 앞 들. 침수가 잘 되었다.
- 수랑배미 : 안죽실 앞 논.
- 숨은논 : 북당골 북쪽의 논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붙여진 이름.
- 스뭇들 : 갯말 동남쪽의 들.
- 시갱이 : 청룡뿌리와 가진재 사이의 들. 비가 오면 자주 침수되었다.
- 심방굴 : 황굴의 중앙에 있는 마을.
- 안양골 : 대실 서쪽의 골짜기.
- 안죽실 : 나분배 서쪽 마을. 안쪽에 있는 죽실이라는 뜻이다.
- 양지뜸 : 방굴 서쪽으로 돌출한 산 줄기의 동쪽 편이다.
- 여수목 : 청룡뿌리 서쪽 마을. 남곡동 들 중 가장 좁은 목에 해당되는 곳이다.
- 오룩골 : 고래등과 새구녕쪽뿌리 사이의 골짜기.
- 오장굴쪽뿌리 : 왕대산에서 갯말 쪽으로 뻗은 산줄기.
- 옥고랑 : 버들골 남쪽 골짜기로 깊은 골짜기라는 뜻이라고 한다.
- 옷새암 : 칩살피 북쪽 끝의 샘. 샘물이 좋아 옷 울렸을 때 씻으면 나왔다고 한다.
- 왕땃골 : 장생이벌과 오장굴쪽뿌리 사이의 계곡.
- 왕땃재 : 새말에서 왕땃골로 넘어가는 고개.
- 움골 : 번던 북쪽의 골짜기.
- 원논 : 방굴 들 입구의 논. 간척사업 이전에 있던 논이다.
- 육굴고개 : 통소골에서 남곡동 육굴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잠생이벌 : 왕대골과 새말 사이의 돌출부이다.

- 장벌 : 남곡동의 서쪽 끝 마을로, 사구(沙丘) 위에 있는 마을이다. 보령지방에서는 바닷가의 사빈을 장벌이라고 부른다.
- 장벌너머 : 방굴 서쪽 언덕 너머의 해안.
- 장틀배미 : 안양골 앞의 논 이름.
- 절굴재 : 방굴에서 해망산 봉우리 사이를 통하여 절굴로 넘어가는 고개.
- 절터 : 움골 위에 있는 절터.
- 정바리들 : 칩살피와 동피산 사이의 들.
- 족실 : 남곡동 서쪽을 통틀어 부르는 이름으로 남곡동의 어원이 되었다.
- 진등 : 가재울과 버들골 사이의 높고 긴 언덕.
- 청룡뿌리 : 여수목과 안족실 사이의 산 밑.
- 큰들 : 새말 앞 들.
- 탑골 : 남곡동 도로 북쪽 마을. 일제시대 초기까지 3층 석탑이 있어 탑골이라 불렀으나, 탑은 일본인 고노에 의해 인천으로 반출되어 현재 인천시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삼층 석탑이다.
- 탑동(塔洞) : 藍谷 3區 중의 하나.
- 통소골 : 여수목 서쪽의 마을.
- 파라굴 : 방굴 서남쪽 골짜기.
- 해맥이 : 북당골과 육골 사이의 고개.
- 황굴 : 남곡동의 동쪽지역. 가재울, 심방굴, 칩살미, 안양골, 강대고랑 등을 통틀어 부르는 이름이다.



장벌 마을 성황당의 신목(1992)



탑골 마을 성황당의 신목(1992)

2) 내항동(內項洞)

본래 보령군 우라면(于羅面)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내송리(內松里),

장항리(獐項里)와 외송리(外松里), 궁촌(宮村)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내송(內松)과 장항(獐項)의 이름을 따서 내항리라 하고 대천면에 편입시켰다.

1986년 대천시 승격과 함께 내항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 가장터 : 새뚝골 서쪽 골짜기로 초빈(草殞)과 애장이 많았던 곳이라고 한다. 옛날에 손님(천연두)이 돌면 많은 아이들이 죽어 이곳에 묻혔는데 여우가 파먹었다고 전한다.
- 가재울 : 왕대산 동쪽 골짜기. 가재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갈치배미 : 안소래 앞에 있는 논.
- 개일골 : 옛 왕대동 사무소 남동쪽, 도로의 남쪽 골짜기. 골짜기에서 물이 나와 예부터 상짜논이라고 하였다.
- 갯골 : 안터와 원절미 사이의 골짜기. ‘개(바다) 안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 갯고개 : 알미와 갯골 사이의 고개. 알미 쪽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 건젓산 : 대천여상 뒤편에 있는 산이다. 양쪽에 봉우리가 있고 가운데가 낮아 말 안장처럼 생겼다.
- 건젓산재 : 안뜸 즉, 대천여상 근처에서 남곡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건깃산 : 건젓산의 다른 이름이다. 건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과거에는 이렇게 많이 불렀음.
- 고루머리재 : 녹문에서 남포 봉덕리 고루머리로 넘어가는 고개. 성황당이 있다.
- 팽이자리들 : 뚝그란 산과 궁촌천 사이의 들.
- 구간사지 : 원절미 앞에 있는 일제시대 막은 간척지. 성업사간사지라고도 한다. 일본인들이 주식회사 형태의 성업사를 만들어 간척 사업을 하였는데, 한내 돌다리 위쪽에 있던 성업사보에서 물을 양수해다 농사를 지었다. 일제시대에는 물은 성업사에서 양수해 주고 땅은 소작을 주었다.
- 구레논 : 안뜸 가운데의 논으로 물이 풍부해서 붙여진 이름.
- 낚은터 : 안산의 남쪽, 옷말의 앞쪽에 있는 산 모퉁이.
- 내송(內松) : 안소래의 한자식 표기. 1960년대 내항 3구 중의 하나로 알미, 옷말까지 통틀어 내송으로 부르기도 했다.
- 노루목 : 녹문의 원 이름. 노루의 목 형상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녹문(鹿門) : 1960년대 내항 3구(鹿門 內松 外松) 중 1구.
- 느릅바 : 건재산에 있는 바위. 말 재갈을 쌓아 놓은 형국이라 붙인 이름이라 한다.

- 닭반나갈 : 안 소래 앞에 있는 논.
- 당산 : 대천여상 앞, 옛 채석장 밑에 있는 낮은 산. 지명으로 보아 과거 동제를 지냈을 것으로 보이나, 주민들에 의하면 동제를 지내지 않았다고 한다.
- 당살미고랑 : 녹문의 서쪽 골짜기로 당살미재 동쪽에 있다. 옛날에는 숲이 우거지고 골이 험하여 호랑이가 살았다고 한다.
- 당살미재 : 녹문에서 안뜸(대천여상)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 고개 너머에 당산이 있어서 붙인 이름이다.
- 둥병배미 : 안소래 앞에 있는 논 이름.
- 판피 : 안소래 동북쪽에 홀로 있는 산으로 따로(홀로) 있다는 뜻에서 판피로 불린다.
- 똥그란산 : 녹문 동북쪽에 있는 똥그란 산으로 목쟁이의 북쪽 봉우리이다. 소나무가 울창하고 일제 시대에 많은 황새가 날아왔다고 한다. 1992년 7월에도 백로가 날아와 서식하였다.
- 똥새논 : 가재울 앞에 있는 논.
- 마려들 : 녹문 앞 들로 궁촌과 경계를 이룬다.
- 매봉재 : 장생이 남쪽 봉우리. 현재는 재 아래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 멩에배미 : 안소래 앞에 있는 논.
- 면산 : 원절미 뒷산. 과거 대천면 소유의 산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목쟁이 : 녹문에서 꿩자리들로 넘어가는 낮은 고개.
- 물통배미 : 안뜸에 있는 논으로 물이 많아 붙인 이름.
- 밧소래 : 안뜸, 안터, 원절미를 통칭하여 밧소래라고 한다. 소래의 바깥 쪽이라는 의미이다.
- 방죽논 : 안뜸에 있는 논. 이 논에 물을 가두어 아래 논에 용수를 공급하였다.
- 벌밭 : 녹문 바로 앞 들.
- 북석이골 : 육굴 밑의 골짜기.
- 사래논 : 안소래 앞에 있는 논.
- 사태골 : 육굴 북쪽의 골짜기. 옛날 나무가 없어 사태가 나는 민둥산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상보 : 남포면 봉덕리와의 접경에 있는 보. 보 밑에 있는 마을을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다.
- 상보평(上淤坪) : 내향동 녹문 마을 앞 들 <1911, 朝鮮地誌資料>
- 새닥뜸 : 녹문의 동쪽.

- 새뜯골 : 육굴 북석이골 앞의 골짜기 논.
- 샘구레 : 건재산 밑의 들로 지하수가 풍부하여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는 법이 없었다고 하며, 오히려 물이 남아 진들들에 용수를 공급했다고 한다.
- 서낭당이 : 녹문에서 상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현재도 돌무더기가 남아있으며 신목은 아가배나무이다.
- 소래 : 내항동의 서쪽 지역을 통칭하는 이름이다. 바다가 만입된 지역을 대부분 소래 또는 소롱굴이라고 부르는데, 누에가 뽕잎을 갉아먹는 것을 ‘쏟다’라고 하므로 누에가 쏟은 것처럼 바다가 만입된 지형을 소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안소래 밧소래로 나뉜다.
- 수릿재 : 육굴과 원절미 사이의 산. 외송 쪽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 신개골 : 안소래와 왕대골 사이의 산줄기.
- 아래뜸 : 안뜸의 서쪽 마을.
- 안뜸 : 대천여상 앞 마을.
- 안산 : 안소래 윗말 앞쪽의 산.
- 안소래 : 왕대사 밑 마을.
- 안터 : 개일골과 갱이골 사이의 마을.
- 알미 : 안소래(內松)의 남동쪽에 있는 마을.
- 알미재 : 알미와 갱이골 사이의 고개. 갱이골 쪽에서 부르는 이름.
- 양지뜸 : 녹문의 북쪽 입구로 회관이 있는 곳.
- 양청배미 : 안소래 앞에 있는 논 이름.
- 양청배미 : 안소래 앞에 있는 논.
- 왕대골 : 왕대산 밑에 있는 골짜기.
- 왕대사(王臺寺) : 왕대산 북서쪽 중턱에 자리잡고 있으며 옛 지리서에 소개되는 것으로 보아 아주 오랜된 절이다. 절 주변 암벽에 미륵불이 새겨져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었다. 암벽 틈에는 고란초가 자란다.
- 왕대산(王臺山) : 내항동과 남곡동의 사이에 있는 산. 해발 122.7m의 화강암 바위산이다.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놀다 갔다고 하여 왕대산으로 불린다고 한다.
- 외송(外松) : 밧소래의 한자식 표기로 내항 3구중 1구이다.
- 용샘 : 샘구레에 있던 샘으로 현재는 없어졌다.
- 원논 : 갱이골 앞 덕 밑에 있는 논. 간척지가 아니고 원래 있던 논이라는 뜻이다.
- 원논 : 안소래 앞에 있는 논 이름.

- 원논 : 안소래 앞에 있는 논.
- 원논 : 원안들 북쪽 간척지와와의 경계에 있는 논.
- 원안들 : 장생이 앞에 있는 들.
- 원절미 : 갯이골 북쪽에 있는 마을.
- 위뜸 : 녹문의 남쪽으로, 지대가 높은 곳이라 위뜸이라 부른다.
- 위뜸 : 안뜸의 동쪽 마을.
- 위말 : 내송의 남서쪽에 있는 마을.
- 육굴 : 새뜯굴 동쪽의 골짜기로 깊은 골짜기라는 의미라고 한다.
- 장생이 : 안뜸과 녹문 사이의 마을. 과거 보령시 농촌지도소가 있었다.
- 장성평(長城坪) : 내향동 밧소래 마을 들 <1911, 朝鮮地誌資料>
- 장항(獐項) : 노루목의 한자식 표기.
- 진태거리 : 녹문 입구 양지뜸 앞 거리.
- 진틀 : 진태거리 앞 들. 질땅과 빨이 많아 예부터 힘센 황소가 아니면 논을 갈 수 없었다고 한다.
- 통목뿌리 : 뚝그란산의 끝.
- 팔죽배미 : 안소래 앞에 있는 논 이름.



왕대사(1994)



왕대사(2005)

3)신흑동(新黑洞)

본래 보령군 우라면(于羅面)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고잠리(高岑里), 군입리(軍入里), 흑포리(黑浦里)와 신대리(新垈里), 사동(寺洞)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신대(新垈)와 흑포(黑浦)의 이름을 따 신흑리라 해서 대천면(읍,시)에 편입시켰다.

1986년 시 승격 이후로 신흑동이라 불린다.

- 갈번덕 : 안통개와 석서골 사이의 언덕으로, 과거 해안의 갈대와 관련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 갈번들 : 구간사지와 통개 사이의 들.
- 갓바위 : 해수욕장 남쪽 끝 바닷가에 있는 바위로 갓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부근에 주막을 비롯한 몇 채의 집이 있었고 배를 대기도 했다고 한다.
- 강당 : 신후동 최북단 골짜기에 있는 마을. 교통이 불편하였으나 근래 해안도로가 개통되어 크게 개발되었다.
- 거머개 : 과거 신후동의 가장 큰 마을이다. 간척사업 이전에는 마을 앞이 모두 바다였던 곳으로 검은 갯벌로 둘러싸인 포구라는 의미로 불렸을 것으로 생각된다. 담양 전 씨의 집성촌인데 전 씨는 임진왜란 직후 신뎃말의 임씨, 고잠의 유씨와 함께 이곳으로 이주해와 세거했다고 한다.
- 거묵포(巨墨浦) : 거머개의 한자식 표현(여지도서).
- 검바위(떨그렁바위) : 강당 서쪽 바닷가에 있는 바위로 떨그렁바위라고도 한다. 바위를 밀면 움직이면서 떨그렁거린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 고새울 : 신뎃말 북쪽의 들 건너 마을.
- 고새울골 : 신뎃말과 고새울 사이에 동서로 된 긴 골짜기. 대부분 논이고 상부지역은 밭이다. 이곳을 통하여 송재로 이어진다.
- 고잠(高岑) :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앞쪽 마을. 해수욕장이 만들어지기 전 해수욕장 부근에 있던 유일한 마을이다. 원래는 꽃의 안쪽이라는 의미로 ‘꽃안’이라고 불린 것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고잠이 된 것으로 보인다.
- 골밭 : 큰담금과 송날 사이의 밭. 좁은 계곡에 있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 관암(冠岩) : 갓바위의 한자식 표기. 여지도서에 김성우 장군이 바위에 갓을 벗어놓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구간사지 : 청룡초등학교 앞들로 1915년 측도한 지형도에 의하면 제방은 축조되고 아직 논으로 개척되지 않았으므로 1910년대 초에 간척한 것으로 보인다.
- 구석밭 : 비선재골 꼭대기에 있는 밭.
- 군두리 : 대천어항 마을. 원래 대천의 포구였던 셋개가 수심이 낮아 배를 대기 어려워 일제 시대에 개발한 어항이다. 계속 확장되고 준설되어 1968년 1월 4일 2중항으로 고시되었다. 그리고 1983년 2월 5일부터 대천항만무선통신소가 세워져 부근을 항해하는 화물선과 여객선을 관리하고 있다.
- 군두리재빼기 : 달푸미시에서 둔두리로 넘어가는 고개.

- 군마루 : 요암동과의 경계 마을. 예부터 군마루라 불렀는데 1950년대부터 마을 북쪽에 미군이 주둔하였고, 1980년대에 한국군으로 교체되었다.
- 군입리(軍入里) : 군두리의 한자식 표현. 1960년대 신흑 3구 중의 1구.
- 군입포(軍入浦) : 군두리의 한자 표기. 여지도서에 군대가 바닷가로 들어와 붙여진 이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군현(軍軒) : 군마루의 한자식 표기. 1960년대 신흑 3구(軍軒 · 黑浦 · 軍入) 중 1구.
- 김서방골 대천해수욕장의 북쪽 끝 상주막 밑 골짜기. 옛날에는 애장이 많았다고 한다.
- 깽깽이비알 : 오적골과 강당사이의 산기슭.
- 꺼리미재 : 임진목골과 오적골 사이의 고개로, 인적이 드물어 넘어가려면 꺼림칙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남대골 : 안산과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사이이다.
- 다보도(多寶島) : 해수욕장 맞은편에 있는 바위 섬이다. 섬 밑에는 흰 자갈이 깔려 있어 경치가 아름답다. 폭이 아주 좁은 섬이다. 다슬기라고 하였다.
- 다슬기 : 다보도의 원이름. 오래 살던 주민들이나 웅천읍 무창포 주민들은 다슬기라고 부른다.
- 달푸미시 : 해수욕장과 군두리 사이의 마을로, 달을 품고 있는 곳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 대랑골 : 땅메산과 거먹개 사이의 골짜기.
- 동그란산 : 뒷박산의 다른 이름.
- 동산 : 달푸미시 북쪽 산.
- 뒷박산 : 갈변들과 새마을 사이에 있는 산. 간척사업 이전에는 간조 때 육지와 연결되는 섬이었다. 택지로 조성되었다.
- 땅메산 : 거먹개 서쪽에 있는 31.8m의 산으로, 주민들은 꼭대기에 큰 묘가 있어 땅메산이라 부른다고 한다.
- 마루뜰 : 임진목골 하부의 들. 들 동쪽 마을을 지칭하기도 한다.
- 매봉재 : 신뎃말 서쪽 봉우리. 옛날에는 천둥재라고 불렀는데 이곳에 장례를 모시면 갑자기 천둥치고 소나기가 왔다고 한다.
- 목재 : 거먹개에서 신뎃말로 넘어가는 고개. 고개가 산의 목부분에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목재너머 : 거먹개의 북쪽, 목재의 동쪽 마을.
- 물오직골 : 큰골과 오적골 사이의 골짜기.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다.
- 미그내재 : 송재를 강당쪽에서 부르는 이름.

- 박통개 : 통개에서 해수욕장 구광장 쪽으로 통하는 골짜기.
- 배달골 : 새말 서쪽 들. 옛날 배가 닿았었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비선재 : 거머개에서 서쪽 마루들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 선녀가 날아갔다는 의미로 비선재라 한다고 한다.
- 비선젯골 : 비선재와 비선재산 사이의 골짜기.
- 비선재산 : 비선재 너머에 있는 산.
- 사골 : 군마루 너머 바닷가에 있는 골짜기. 교통이 불편하였으나 해안도로의 개통으로 개발이 기대된다.
- 상주막(常住幕) : 큰담금과 군두리 재빠기 사이의 언덕. 옛 도로가 지나던 곳이다.
- 새뜰 : 달푸미시에서 장벌로 흐르는 개울.
- 새마을 : 양어장과 장벌 사이의 마을로, 집들이 새로 들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새말 : 군마루 북쪽 마을로 요암동의 절굴과 연속되어 있다. 중앙을 지나는 도로를 경계로 한다. 1950년대 미군부대가 들어온 뒤로 많은 집들이 들어서 새말이라 불렸다. 원래 미군들은 군마루에 살았는데 미군들과 함께 온 위안부들에 대한 주민의 저항으로 모두 새말로 옮기게 되었고 이후 새말은 전형적인 기지촌으로 발전하였다. 1970년대 말 미군 철수 후 마을은 쇠퇴하여 현재는 한적한 농촌지역으로 변화되었다.
- 새터말 : 군두리재빠기 너머의 첫번째 마을로, 가옥이 새로 들어서서 붙여진 이름이다. 근래에 아파트도 들어서 있다.
- 서낭댕이 : 고새울골에서 꺼리미재로 올라가는 산허리에 있다.
- 서낭댕이 : 목재너머 마을에서 고새울 쪽으로 가는 길 옆에 있다. 1980년대 초까지는 마을 사람들이 서낭제를 지내곤 했으나 현재는 지내지 않는다. 아직까지 전형적인 성황당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물푸레나무, 시오나무, 참나무, 소나무, 팽나무 등의 신목이 섞여 숲을 이루고 있다.
- 석서골 : 청룡산과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긴 골짜기.
- 소도독골 : 석서골 위쪽에 있는 골짜기로 인적이 드물어 붙여진 이름. 일제시대 초기까지 소도독골 윗길로 하여 대천 시내에서 군두리(어항)로 통하였다.
- 송재 : 고새울골에서 강당고랑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해발 90여 m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고개로, 이 고개를 넘어 거머개 주민들이 강당고랑 앞 바다에 나가곤 하였다.
- 수구맥이 : 거머개 앞 수문이 있던 곳. 구간척지의 제방이 거머개에서 남포면 삼현리로 이어지고 수문이 거머개 쪽으로 나 있었다. 이곳에는 과거 많은 버드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거머개가 풍수설상 8모란의 하나이기 때문에 물을 막아 모란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었다고 하나, 간척지 제방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습지에서 잘

자라는 버드나무를 심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수양관 : 해수욕장 남쪽 지역의 숲 속에 있는 건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인 선교사들의 별장이다. 28,000여 평을 점유하고 있다.
- 송날 : 군두리에서 북쪽으로 돌출한 곳으로 여기에 이어서 방파제를 건설하였다. 일제 시대에 이곳에 신사를 세우고 참배하도록 했다고 한다. 어항의 매립지도 이 곳에서 밀차(레일 위를 밀고 다니는 무동력 차)로 흙을 실어다 매립하였다고 한다.
- 신대리(新垓里) : 신뎃말의 한자 표기.
- 신뎃말 : 거먹개와 고새울들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평택 임 씨 집성촌이다. 평택 임 씨는 임진왜란 직후 홍성에서 담양 전씨, 유씨와 함께 대천지방으로 옮겨 왔다고 한다. 마을의 한 가운데에는 오래된 정자나무가 있다.
- 안산 : 청과초등학교가 있는 언덕이다(19.9 m). 달푸미시의 앞산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 안통개 : 통개에서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쪽으로 통하는 골짜기.
- 여술골 : 마루뜰과 비선재산 사이의 긴 골짜기.
- 오적골 : 물오직골과 강당사이의 골짜기로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다.
- 옷샘 : 강당고랑에 있는 샘. 부대 앞에서 넘어가는 고개 밑에 있는데, 물이 좋아 옷이 올랐을 때 씻으면 낫는다고 전한다.
- 원논 : 마루뜰 아래쪽 도로 바로 밑에 있는 논으로, 간척지가 아닌 원래의 논이라는 뜻이다.
- 육답 : 강당골에 있는 논. 원래 육지에 있던 논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 인천부대앞 : 군부대 북쪽 마을로 1950년대 최초로 들어온 미군이 인천에서 옮겨와 인천부대라고 불렀고 그 부대 앞이라는 의미로 인천부대앞이라 불리게 되었다.
- 임진목골 : 마루뜰 상부의 음침한 골짜기이다. 이곳을 통하여 오적골이나 강당골로 넘어간다.
- 장벌 : 해수욕장의 모래벌판을 주민들이 부르는 이름이다. 6·25사변 중 인천상륙작전 직후 미군들의 탱크부대가 이곳으로 상륙했다고 한다.
- 채석장 : 해망산 서북쪽 기슭으로 일제시대부터 화강암을 개발하여 비석용으로 공급하였다. 과거 채석했던 웅덩이에 보령시 쓰레기를 매립 처리하고 있다.
- 청룡산 : 거먹개와 석서골 사이에 있는 긴 언덕으로 풍수설의 좌청룡에 해당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 청룡재 : 거먹개와 석서골 사이의 고개.
- 큰골 : 새터말 동쪽의 골짜기.

- 큰담금 : 군두리에서 서쪽으로 돌출한 산 끝.
- 통개 : 고잡 마을 남쪽의 논. 이곳은 과거 바닷물이 들어와 바다와 통한다는 뜻으로 '통개'로 불렸을 것으로 생각되며 아주 오래전에 간척사업이 이루어진 곳이다.
- 통샘 : 통샘고랑에 있는 샘.
- 통샘고랑 : 달푸미시 북쪽 골짜기로, 통샘이라는 샘이 있어 붙여진 이름.
- 퇴비턱굴 : 고새울과 송재 사이의 골짜기.
- 할매바위 : 땅메산 남쪽 끝에 있던 바위로, 도로 확장 공사로 없어졌다.
- 흑턱굴 : 배달골 위쪽의 서쪽 골짜기.
- 흑포(黑浦) : 거머개의 한자식 표기로 1960년대 신항 3구 중 1구.



대천해수욕장 모래조각전(1992)



일제시대 별장(1992)

4) 요암동(蓼庵洞)

본래 보령시 우라면(于羅面)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금암리(金庵里)와 신대리(新垈里), 사동(寺洞), 요동(蓼洞), 대동(大洞)의 각 일부와 남포군(藍浦郡) 북내면(北內面)의 후동(後洞)을 병합하여 요동(蓼洞)과 금암(金庵)의 이름을 따서 요암리라 하여 대천면에 편입되었다. 1986년 시 승격과 함께 요암동으로 부르게 되었다.

蓼는 여뀌 요, 풀길 육의 훈과 음을 가진 자로 육굴을 표기하기 위하여 '풀길 육'의 의미로 蓼자를 썼으나 많이 쓰이는 '요'로 읽혀 요암동이라 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서낭댕이 : 서낭댕이 고개의 정상. 소나무가 신목임.
- 골매기재 : 소암에서 남포로 통하는 재.
- 구도로 : 육굴 아래뜸 밑을 지나는 도로로, 과거에는 이곳을 통하여 군두리(어항)으로 갔다.
- 군입포(軍入浦, 군드리포) : 군드리포구(현 대천항) <1911, 朝鮮地誌資料>
- 금암(金岩) : 소암의 한자식 표기. 일제 시대 간행된 1:50000 지형도에 표기됨.

- 금암(金庵) : 소암의 한자식 표기.
- 꽃나무재 : 소암에서 육굴 아래뜸으로 넘어가는 고개. 옛날에 옹기그릇을 구웠다.
- 꿩골재 : 매봉재 남쪽으로 해서 꿩골로 통하는 고개.
- 당논골 : 절골 밑의 들.
- 당재 : 큰육굴과 절굴사이의 고개.
- 독새끝 : 해수욕장 도로 북쪽에 있는 육굴 쪽에서 나온 산줄기의 끝.
- 동화실골 : 절터골 밑 골짜기. 긴 들이다.
- 둥구재 : 육굴과 죽실 사이의 산.
- 뒷굴 : 요암동의 서남쪽, 남포면 제석리와의 경계에 있는 마을. 보령뒷굴, 남포뒷굴이 있는데 보령뒷굴이 요암동에 속하고, 남포뒷굴은 남포면에 속한다. 행정구역은 서로 다르지만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은 한 마을과 같다.
- 뒷굴앞들 : 뒷굴과 해수욕장 도로 사이의 들.
- 탄충묘 : 쇠퍼리 밑에 있는 평평한 땅으로 옛 무덤이 많다.
- 망종터 : 소암에서 남포면 제석리로 통하는 길 주변의 평지.
- 매봉재 : 소암 서북쪽 남곡동과 경계가 되는 산봉우리.
- 방굴재 : 절골에서 방굴로 넘어가는 고개.
- 부영이바위 : 부영이바위재 꼭대기에 있는 큰 바위.
- 부영이바위재 : 작은 육굴에서 큰 육굴로 넘어가는 고개.
- 사곡(寺谷) : 요암동 2구 중 1구.
- 사동(寺洞) : 절골의 한자식 표기.
- 산소말랭이 : 작은 육굴과 큰 육굴 사이에 있는 산.
- 서낭맹이 : 당재 위에 있다. 신수는 소나무이며 돌무더기도 아직 남아 있다.
- 서낭맹이 : 청너머 서쪽, 옛 도로변 소나무 숲 속에 있다.
- 서낭맹이고개 : 소암에서 남포면 제석리로 통하는 고개.
- 소암 : 해수욕장 도로 동남쪽, 건재산의 서북쪽 자락에 있는 마을이다. 남곡동과 가까워 친목계, 상여계 등은 남곡동과 함께 한다.
- 소암들 : 소암 앞 들.
- 소암말랭이 : 소암재 서쪽의 능선.
- 소암재 : 소암에서 황굴로 넘어가는 재.
- 쇠퍼리 : 육굴 아래뜸의 남쪽, 해망산에서 당재로 내려오는 줄기가 끝나는 곳에 있는 마을이다.
- 신대리(新垞里) : 신댓말 <1911, 朝鮮地誌資料>

- 앞고랑 : 육굴 아래뜸 앞의 논.
- 오주망개 : 죽선미 앞 쪽에 있는 밭.
- 요곡(蓼谷) : 요암동 2구 중 1구. 육굴을 말한다.
- 용샘배미 : 소암들의 논으로 샘에서 용이 나왔다고 한다.
- 원논 : 독새끝 앞의 논.
- 육굴 : 해망산 남쪽 계곡과 계곡에 있는 마을 이름.
- 육굴고개 : 육굴에서 남곡동 죽실, 통소골로 넘어가는 고개.
- 이민촌 : 요암동의 서남쪽 끝 도로변에 있는 마을로, 간척지 경작을 위해 외지에서 들어왔다고 하여 이민촌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 작은육굴 : 육굴 동쪽 마을.
- 절골 : 신희동과의 경계에 있는 마을. 요암동에서 가장 큰 마을로 예부터 남양 홍씨의 집성촌이었다.
- 절터 : 절터골 위에 있다. 아직도 석축이 남아 있다.
- 절터골 : 해망산 남쪽 골짜기. 동화실골의 위쪽이다.
- 죽선미 : 작은육굴과 큰육굴이 갈라지는 삼거리의 동쪽 산기슭.
- 칩대밭 : 소암마을 뒤의 번덕지로, 칩과 대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칼날고랑 : 큰육굴 위 계곡으로, 지세가 뽀족해서 붙인 이름이다.
- 큰메쪽뿌리 : 소암에서 현 농공단지 쪽으로 뻗은 산 능선. 모두 평탄해졌다.
- 큰육굴 : 육굴의 서쪽 마을.
- 해망산(海望山) : 요암동과 남곡동 사이의 산. 동서로 두 봉우리를 이루고 있으며 바다에 면해 있는 산으로, 주변에서 가장 높아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라서 군부대가 들어서 있다. 바다를 지켜본다는 의미로 해망산이라 하였다고 한다.
- 후동(後洞) : 뒷굴의 한자식 표기.
- 흙금내 : 이민촌의 다른 이름이다. 땅이 검고 기름지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절터골 샘(1992)



요암농공단지(2002)